일본 근대문학과 스포츠 내셔널리즘*

-1936년 베를린올림픽을 전후해서-

김 옥 희**
koh@knsu.ac.kr

〈 目 次 〉

1. 머리말
-1936년 베를린올림픽이 갖는 의미
2. 올림픽응원가 가사의 현상모집
3. 올림픽 보도에 참여한 문인들
4. 올림픽 개막식에 대한 보도
5. 손기정의 마라톤 우승에 대한 보도
6. <올림피아>에 대한 문인들의 감상문
7. 맺음말

Key word : 스포츠 내셔널리즘(Sports Nationalism), 베를린올림픽(Berlin Olympic Games), 요코미쓰 리이치(Yokomitsu Riichi), 사이조 야소(Saijo Yaso), 무샤노코지 사네아쓰(Mushanokoji Saneatsu)

1. 머리말

-1936년 베를린올림픽이 갖는 의미

1930년대는 일본 정부가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강화와 군국주의의 확산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시기에 해당한다. 동시에 1930년대는 대중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스포츠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군국주의의 확산과 스포츠의 대중화는 서로 아무런 상관관계 없이 우연히 일어난 현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대중화의 이면에는 군국주의와 국가주의의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016023).1)
**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일본문학

www.kci.go.kr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일본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시대 이래로 스포츠는 위정자들에 의해 대중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정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일본에서는 1930년대에 그런 현상이 특히 두드러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1930년대의 스포츠사(史)를 살펴보면, 일본 정부가 대내적으로는 각종 경기장의 건설과 전국대회의 개최, 라디오 체조의 보급 등을 통해 스포츠의 대중화에 노력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올림픽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친 것이 눈에 띈다. 가령 1932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올림픽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세계대공황으로 선수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개최국인 미국 다음으로 대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한 것만으로도 그러한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다.

스포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은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때에 더욱 더 확대된다. 1936년 나치 치하에서 개최된 베를린올림픽은 스포츠의 정치적 이용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대회다. 히틀러는 올림픽을 통해 독일의 국력을 과시하고 게르만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하고자 했으며, 그러한 의도는 충분히 달성되었다.[1] 한반도의 식민지배와 만주국의 건설로, 당시 이미 파시즘국가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일본은 독일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방국 독일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했던 것이다.[2] 더불어서 제12회 올림픽을 도쿄에서 개최하고자 했던 일본은 올림픽 유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스포츠 선진국임을 과시하려면 선수단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서도

---

1) 그러한 상황은 당시에 대회 임원으로서 참가했던 아사노 긴이치(淺野均一)가 올림픽 직후에 『문예춘추(文藝春秋)』에 기고한 글에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나치스 독일의 발전상을 각국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점에 있어서 성공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한편으로 독일이, 그리고 히틀러가 올림픽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으며, 그러한 끈질긴 노력이 오늘날의 나치스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다.”(1936년11월호.. 『「文藝春秋」にみるスポーツ昭和史 』<1988> 第1巻、文藝春秋、p.276)

2) 일본은 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1936년11월에 독일과 방공협정을 맺는다. 이어서 이듬해인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킨다.

www.kci.go.kr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사실 1936년의 일본은 국민들이 마음 놓고 올림픽을 즐길 만큼 정치적으로 자유롭지도 않았으며,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도 않았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선 청년 장교들에 의한 군사쿠데타인 <2, 26 사건>이 1936년에 일어난 것을 필두로 하여, 그 영향으로 2월27일에는 도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6월15일에는 불온문서단속법이 공포되었고, 또한 7월10일에는 좌익문화단체 관계자의 일제 검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실 일본 국민들이 8월1일부터 시작된 베를린올림픽을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일본 정부는 효과적인 정치적 탄압과 철저한 사상의 통제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을 올림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올림픽 개최 13일 전에 계엄령을 해제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베를린올림픽 개최 직전의 일본의 스포츠사와 정치적 상황을 살펴봤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국민의 열렬한 응원에 힘입어 일본선수단은 베를린올림픽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올림픽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관심도 역대 최고였으며, 그러면서 스포츠 내셔널리즘 역시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 결과 1940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의 유치에도 성공하게 된다.[3)]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 이 논문에서는 베를린올림픽 개최를 전후하는 시기에 일본에서 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확대와 내셔널리즘 고조를 위해 문학이라는 장르가, 그리고 문학자들이 어떤 역할과 기여를 했으며,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올림픽응원가 가사의 현상모집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일본 정부의 의도에 적극 협조하며 신속히 대응한 것은 매스 미디어다. 특히 각 신문사들은 독자 확보를 위해

3) 하지만 일본은 계속된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올림픽 개최를 반납해, 결국 1940년에는 올림픽이 열리지 않았다.

www.kci.go.kr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기에, 좀 더 대중들에게 친숙한 방식을 이용해 올림픽 열기를 고조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아사히(朝日)신문사가 고안해낸 것이 바로 올림픽응원가 가사의 현상모집이었다. 응원가는 음악의 영역이겠지만, 응원가의 가사는 시의 영역에 속하므로, 결국 문학이라는 장르를 활용한 셈이다. 또한 응원가란 일본 선수들을 응원한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만큼 숙명적으로 내셔널리즘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930년대에 문학과 스포츠 내셔널리즘의 결탁은 올림픽응원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문사에서 응원가의 현상모집을 시작한 것은 1932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 때부터다. 1931년 9월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1932년 3월에 만주국이라는 괴뢰정권을 탄생시킨 일본이 국내외의 비판 여론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 대대적인 지원을 했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4]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도쿄와 오사카의 『아사히신문』은 1932년 4월 17일자 조간에 <올림픽파견선수응원가> 현상모집 공고를 실었다. 마감이 4월 30일이었으니 불과 열흘 남짓의 기간에 무려 48581편의 응모작이 모였다. 그 가운데서 당시 중학생이었던 사이토 류(斎藤龍)의 작품이 당선되었다.[5] 「달려라 대지를」이라는 제목으로 불린 이 응원가는 총 3절로 이루어져 있다.

달려라 대지를 있는 힘을 다해서
헤엄쳐라 힘차게 물보라를 일으키며
그대들의 팔은 그대들의 다리는
　　우리 일본의
고귀한 일본의 팔이다! 다리다!

뛰어올라라 씩씩하게 지축을 박차며
던져라 당당하게 푸른 하늘 드높이

4) 올림픽을 둘러싼 당시의 일본 사회의 분위기는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 조정선수로 참가했던 작가 다나카 히데미쓰(田中英光)의 『올림포스의 과일(オリンポスの果実)』(1940)이라는 소설에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졸저(2012) 『일본 근대문학과 스포츠』 소명출판 pp.124-139 참조.

5) 坂上康博(1998) 權力裝置としてのスポーツ, 講談社 pp.181-182

www.kci.go.kr

그대들의 힘은 그대들의 기개는
우리 일본의
빛나는 일본의 힘이다! 기개다!

올려라 일장기를 녹색 바람 속에
울려라 기미가요 구로시오를 넘어서
그대들의 명예는 그대들의 영광은
우리 일본의
청년 일본의 명예다! 영광이다!

여기에 당대 최고의 작곡가 야마다 고사쿠(山田耕筰)가 곡을 붙여 만든 응원가는 올림픽 기간 내내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울려 퍼졌다. 또한 일본 선수가 참가한 경기의 중계를 듣기 위해 라디오 앞에 모여 응원을 할 때면 어김없이 불리는 노래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응원가는 당시 일본 국민들을 올림픽에서의 승리라는 공통의 목표 하에 일본이라는 국가를 구심점으로 하여 단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응원가는 뒤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로스앤젤레스올림픽 때만이 아니라 1936년 베를린올림픽 때도 재활용됨으로써 계속 그 영향력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1절에는 '달려라' '헤엄쳐라'와 같은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육상과 수영 종목이 등장한다. 그리고 2절에는 도약과 투척 종목이 등장하고, 이어서 3절에는 특정 종목에 대한 응원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여기에 육상과 수영, 도약, 투척이 등장하는 것은 당시 일본 선수들이 강세를 보인 종목이기 때문이다.[6] 그런데 이 응원가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팔과 다리, 즉 한 개인의 신체는 곧 국가의 신체이며, 승리를 통해 얻은 개인의 영예는 곧 국가의 영예라는 의식이다. 이러한 의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응원가를 듣고 부름으로 해서 스포츠 내셔널리즘은 일본 국민들 사이에

6) 실제로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서 일본은 금메달을 육상에서 1개, 수영에서 5개, 그리고 승마에서 1개, 총 7개를 획득해, 참가국 중 5위에 올랐다. 금메달만이 아니라 은메달과 동메달 역시 거의 육상과 수영에서 나왔다.

www.kci.go.kr

자연스럽게 퍼져갔을 것이다.

올림픽응원가의 파급 효과를 충분히 경험한 일본의 매스컴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도 역시 현상모집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아사히신문』이 아니라 라이벌 관계였던『오사카마이니치(大阪每日)신문』이 자회사인『도쿄니치니치(東京日日)신문』까지 가세시켜 1936년 1월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렇게 해서 모인 37000여 편의 응모작 가운데 32세의 시인 야마다 가이지(山田塊二)의 「올려라 일장기를」이 당선되어, 심사위원으로도 참가했던 야마다 고사쿠가 이번에도 작곡을 맡았다.[7] 지면 관계상 제1절만 인용해 보기로 하자.

올려라 물보라 소리를 높이
올려라 영예의 기량을 드높이
그대들의 젊음을 다 바쳐서
태양이 빛나도다 찬란하게
환호를 받으며 나아가거라 선수여
제패를 노리는 물 위를

「달려라 대지를」과 마찬가지로 1절은 역시 가장 메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었던 수영에서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8] 내셔널리즘이 기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같다. 하지만 2절과 3절 두 차례에 걸쳐 "올려라 일장기를"이라는 구절이 나오고, 이어서 3절에서 또다시 "울려라 기미가요를"이라는 구절이 나와, 「달려라 대지를」보다도 내셔널리즘이 더욱 강화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올려라 일장기를」에는 「달려라 대지를」에 비해 전체적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문어체의 생경한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다. 그렇기에 새로이 현상모집을 하지 않고 지난 대회 응원가의 재활용을 결정한 아사히신문사의 「달려라 대지를」이 베를린올림픽 때도 일본 국민들의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9]

---

7) <日本軍歌保管庫> http://gunka.sakura.ne.jp/uta/ageyohinomaru.htm
8) 베를린올림픽에서 일본은 총 금메달 6개 중 4개를 수영에서 획득했다.
9)『ウィキペディア』의 <ベルリンオリンピック> 항목 참조. 한편『요미우리(讀賣)신문』에서도「일어나라 젊은이여」라는 제목의 응원가를 만들어 레코드 취입하여 보급했으나 지명도에 있어서는 「달려라 대지를」에 미치지 못했다.

www.kci.go.kr

이러한 현상모집에서 심사위원은 주로 문학자들이 맡았다. 올려라 일장기를」의 경우를 보면, 기타하라 하쿠슈(北原白秋)와 기쿠치 간(菊池寬)과 같은 당대의 내로라하는 문학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기타하라 하쿠슈는 올려라 일장기를」에 대해서, "다소 힘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밖의 점에서는 훌륭하다"는 심사평을 했다.[10] "힘이 약하다"는 것은 곧 올림픽응원가로서 내셔널리즘의 고취라는 목적을 달성시킬 만한 힘이 약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1930년대에는 특정한 공적인 목적을 위해 노래를 제작해 보급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졌다. 만주사변 이후 긴박한 전시체제 하에서 일본 국민들의 전의를 북돋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노래가 이용되었으며, 그러한 노래들을 국민가(國民歌)라고 했는데. 올림픽응원가도 그런 국민가의 일종으로 제작된 것이다.[11] 물론 이러한 국민가의 유행 현상은 1925년에 개시된 라디오방송이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신문사에서 가사를 모집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거기에 곡을 붙여 완성시킨 노래의 보급은 라디오방송국에서 책임졌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림픽 개막 이전부터 일본의 승리를 염원하고 응원하는 분위기의 조성에 문학이 일조를 했다고 할 수 있다.

3. 올림픽 보도에 참여한 문인들

응원가의 현상모집에 이어서 매스컴에서는 베를린의 올림픽 열기를 일본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취재와 보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신문사에서는 소설가와 시인을 활용했다. 베를린올림픽 때 처음으로 문학자가 스포츠의 보도에 참여를 한 것이다. 신감각파의 소설가 요코미쓰 리이치(橫光利一)와 시라카바(白樺)파의 소설가 무샤노코지 사네아쓰(武者小路實篤), 그리고 시인 사이조 야소(西條八十)가 그 주인

10) 주 8)의 자료.

11) 국민가의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문학자로는 단연 기타하라 하쿠슈를 들 수 있다. 기타하라 하쿠슈는 야마다 고사쿠와 공동으로 수많은 국민가, 교가 등의 가사를 썼다. 그런 이력이 있기에 마이니치신문사에서 그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www.kci.go.kr

공들이다. 그들은 경기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목격한 개회식 광경이나 경기 모습, 메달 수상 소식 등을 때로는 문학적 수사를 곁들인 산문으로, 때로는 시와 같은 운문으로 전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문학자들 가운데 하필 이 세 사람이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사이조 야소의 경우는 그 이전의 이력을 살펴보면 워낙에 특별한 목적에 맞춰 짓는 행사시(occasional poems. 기회시라고도 함)에 강한 면모를 보여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올림픽 때 「올림픽의 용사를 맞이하며」라는 제목으로 스포츠를 소재로 한 시 다섯 편을 발표하기도 했다.[12] 물론 직접 올림픽을 관전하며 쓴 것이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 일본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지은 시다. 또한 사이조는 베를린올림픽 때도 임시특파원 제의를 받기 이전에 이미 「올림픽 선수를 보내며」라는 시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사이조는 임시특파원 제의를, 그것도 아사히와 요미우리(讀賣)의 두 신문사로부터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며, 그 누구보다도 적임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이력에 걸맞게 사이조는 실제로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충실히 리포터 역할을 수행했다. 셋 중에서 가장 많은 시와 산문을 일본으로 전송했으며, 그 내용 또한 내셔널리즘의 고취라는 리포터의 임무에 충실한 구절로 채워져 있다.[13] 그런 점에서 가장 성공적인 캐스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샤노코지와 요코미쓰, 두 소설가다.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올림픽 관련 기사를 쓰게 되었는지, 두 사람의 이력과 문학적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쉽게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시라카바의 작가들 가운데서도 무샤노코지는 가장 스포츠와는 거리가 멀었던 작가다. 필자는 시라카바파와 스포츠, 그리고 무샤노코지와 스포츠에 대해서는 1919년에 발표된 탁구를 소재로 한 소설『우정(友情)』을 분석하며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14] 또한 올림픽 폐막 이틀 전에 작성된 「올림픽 회상」(『호반의 화상<湖畔の畵商>』 수록)에서 "솔직히 말하면 하루 종일 경기장에 있으면 나는 기운이 쭉 빠지는 사람이

12) 上村直己(2012)『西條八十の見たベルリン五輪』、熊本出版文化会館 p.14
13) 상세한 것은 주 13)의 저서를 참조.
14) 졸저(2012)『일본 근대문학과 스포츠』소명출판 pp.76-77

www.kci.go.kr

다.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보여주는 것만을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속이 공허해진다."[15]라고 술회했던 것을 보더라도 그가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스포츠에 소질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그가 사이조와 함께 『아사히신문』의 임시특파원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구미여행일기(歐米旅行日記)』(1941)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 일기에 의하면 무샤노코지가 일본을 출발한 것은 1936년 4월말이었으며, 베를린에 도착한 것은 6월10일이었다. 즉 올림픽 개막 3개월 전에 이미 출국했으며, 그의 출국은 평소 관심이 많던 서양미술을 직접 보려는 목적과, 독일대사로 근무하고 있던 형을 만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올림픽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베를린에 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신문사 측에서 임시특파원 역할을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의뢰를 한 측도, 그리고 의뢰를 받은 측도 수동적인 선택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요코미쓰의 경우는 어떨까? 요코미쓰는 1936년 2월 20일에 출국했다. 올림픽 개막 5개월 전에 『도쿄니치니치신문』과 『오사카마이니치신문』의 유럽특파원으로서 출국한 것이다. 미리 유럽에 도착한 요코미쓰는 올림픽이 시작될 때까지는 주로 파리에서 지냈다. 런던에 여행도 갔으며 프랑스 이곳저곳을 돌아보기도 했다. 그러다가 올림픽 개막에 맞춰 베를린에 도착해 올림픽관전기를 써서 신문사로 송부했다. 그리고 귀국해서는 「구주기행(歐州紀行)」(1937)을 출간했다. 그러나 올림픽에는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않았던 듯, 「구주기행」에서 올림픽 관련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구주기행」에 이어서 요코미쓰는 1937년 4월부터 『도쿄니치니치신문』과 『오사카마이니치신문』에 소설 『여수(旅愁)』의 동시 연재를 시작한다. 결국 완성을 보지는 못했으나, 『여수』는 1937년부터 1946년 1월까지 무려 9년에 걸쳐 연재되었을 정도로 요코미쓰의 최후의 대작이다. 이렇게 보면 마이니치신문사 측에서 6개월 동안의 체재비를 제공하며 요코미쓰를 유럽에 파견한 것도, 그리고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요코미쓰가 올림픽 보도를 맡게 된 것도 어쩌면 연재소설을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뒤에서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요코미

15) 『武者小路實篤全集』(1989) 12卷 小学館, p.55

www.kci.go.kr

쓰가 올림픽이 폐막되기도 전에 귀국길에 오른 것도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당시 요코미쓰는 '소설의 신'으로서 평가받으며 한창 인기가 있었다. 그런 그에게 마이니치신문사에서는 연재를 목적으로 유럽 배경의 소설을 위한 유럽행을 제안했고, 겸사겸사 올림픽 보도기사도 부탁한 것이다. 물론 요코미쓰도 올림픽보다는 소설을 위해서 그 제안을 마지못해 수락했을 것이다.[16] 그렇기에 그는 리터포로서 매우 불성실했던 것이다. 여하튼 세계사적으로 정치적 변동이 심한 격동기에 이루어진 6개월 동안의 유럽 체재 경험은 요코미쓰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각기 다른 배경과 이유로 세 문학자는 올림픽 리포터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과 이유를 알게 되면 세 문학자가 쓴 올림픽 관련 산문이나 운문을 읽을 때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4. 올림픽 개막식에 대한 보도

베를린올림픽의 개막식은 8월1일에 거행되었다. 히틀러의 개회선언과 함께 독일인의 자존심을 건 성대하고 화려한 개막식 행사가 펼쳐졌는데, 그 광경을 보며 사이조 야소는「조국을 걸다(祖国を賭ける)」라는 제목의 시를 썼다. 그 시는 곧바로 이런 설명과 함께『요미우리신문』1936년 8월 2일자 호외에 실렸다. 즉 "우리 신문사 올림픽특파원 사이조 야소 씨는 시인이 갖는 특이한 감수성과 섬세한 묘사를 담기에 적합한 <시> 형식을 빌어서" 국제전화로 보내왔다는 것이다. 문학자들을 특파원으로 기용한 이유가 함축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셈이다. 이 시는 당시에 가장 많은 화제가 되었으며, 또한 스포츠 내셔널리즘의 진수를 보여주는 시다. 장문의 시이기에 인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조국을 걸다」에서 사이조는 격앙된 어조로 개막식의 감동을 전하며 "하일! 하일! 하일! 히틀러!"를 외치며 히틀러를 찬양하는가 하면, 일장기와 함께 "조국을 걸"고 입장하는 일본선수단의 모습을

16) 실제로 요코미쓰는 유럽행을 내켜하지 않았다고 한다. 福田清人(1967)『横光利一』清水書院 p.75 참고.

www.kci.go.kr

상세히 묘사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이렇게 선동성이 강한 사이조의 시에 도취되어 대다수의 일본 국민이 내셔널리즘에 흠뻑 젖어 흥분해 있을 때, 한편으로 일본 내에서 그런 현상을 냉철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문예춘추』1936년 9월호에 실린 사회주의자 야마카와 히토시(山川均)의 글 「국제스포츠의 명과 암(國際スポーツの明朗と不明朗)」[17]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우선 그는 "스포츠는 인간 정력의 순수한 낭비이며, 추구하는 목적이 전혀 없다는 의미에서 완전히 무가치하다는 점에 스포츠의 가치가 있다."는 입장에서 1940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기로 결정된 것에 흥분하는 일본 국내의 분위기에 대해 언급한다. 그런 다음, "그들을 고취하고 있는 것은 스포츠정신이 아니라 국민정신이나 민족정신이다."라고 하며 스포츠 내셔널리즘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어서 사이조의 시 「조국을 걸다」를 거론하며, "아무 것도 아닌 일에도 조국을 걸고 싶어 하는 원시민족적인 저열한 애국심에 아첨하거나 속물적인 그런 감정을 선동하거나, 또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신랄하게 꼬집는다.

그런가 하면 무샤노코지나 요코미쓰의 기사에서는 그런 식의 비판을 받을 만한 요소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즉 사이조의 「조국을 걸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냉정하고 담담하게 개회식 광경을 전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나마 무샤노코지가 쓴 기사에는 "우리도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경기에서 일본이 승리할 것을 어린애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희망한다."[18]는 정도의 소박한 내셔널리즘이라도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요코미쓰가 쓴 기사에서는 그 정도의 내셔널리즘도 발견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일본선수단의 실수를 지적하며, "후반의 일본선수들이 발걸음이 흐트러져 밟아서는 안 되는 잔디를 밟으며 행진해 오는 모습을 보니, 일본의 올림픽 유치로 선수들이 흥분해 있는 것이 보여 손에 땀이 났다."라고 냉소적으로 전하면서, "민족의 평화의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로 끝을 맺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이조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개막식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리포터라는 자신의 본분을 의식해 더 이상의 논평은 자제하고 있는 것이 행간에서 읽힌다.[19]

17) 文藝春秋 編(1988)『文芸春秋にみるスポーツ昭和史』第1巻, 文藝春秋社 pp.278-284
18) 주 16)의 책 p.46

www.kci.go.kr

당시에도 이렇게 각기 다른 시각에서 세 문학자가 전한 보도기사는 독자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 같다. 『문예춘추』1936년 9월호에는 세 문학자의 글이나 시를 비교 분석한 익명의 평자에 의한 매우 흥미로운 논평[20]이 실려 있다. 우선 무샤노코지에 대해서는, 스포츠의 특성도, 문학자로서의 개성도, 특파원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기사라며 혹평을 한다. 그러면서 단지 무샤노코지라는 이름이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었을 따름이라고 비판한다. 그에 비해서 요코미쓰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개막식에서 일본선수단의 실수를 지적한 부분을 언급하며, 신문기사 이상으로 냉철한 비판력이 돋보이는 글이었다고 하면서 문학성 또한 훌륭했다는 평을 한다. 그런가 하면 사이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거론하지 않은 채 특파원으로서 기용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며 "아사히의 대중화"를 한탄한다. 즉 어떤 철학이나 문학적 소신이 없는 사이조를 기용한 것은 곧 『아사히신문』의 대중화로밖에 볼 수 없다며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개막식에 관한 운문이나 산문만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어지는 올림픽 관련 보도 전반에 대해서도 이러한 평가는 유효할 듯하다.

5. 손기정의 마라톤 우승에 대한 보도

기쿠치 간이 1923년에 창간한, 당시의 대표적인 문예지 『문예춘추』는 스포츠의 대중화라는 시류를 반영해 스포츠 관련 글들을 종종 게재해 왔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들을 불러 <올림픽의 영웅들(オリンピックの英雄たち)>이라는 제목으로 '매머드 좌담회', 즉 대규모 좌담회를 개최하곤 했다. '매머드 좌담회'에서는 주로 올림픽에서의 비화나 에피소드 등이 거론되었다. 1928년 암스테르담올림픽 때 처음으로 시작되어 1932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 때까지 이어졌으나, 정작 좋은 성적을 거뒀으며 국민

19) 반면에 사이조가 『요미우리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는 같은 장면에 대해 "사열종대의 일본 의 남아와 일본의 여성은 필드의 선을 밟으며, (중략) 가장 자신감에 찬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1936년 8월 2일)라며 일본선수단을 극찬하고 있다.

20) 関無門 壮絶な空輸リレー ー新聞匿名月評-」(『文芸春秋』 1936. 9)

www.kci.go.kr

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던 베를린올림픽 때는 좌담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52년 헬싱키올림픽 때 세 번째로 좌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어서 1956년 멜버른올림픽, 그리고 1960년 로마올림픽 때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1964년에는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으니 신선한 이야기가 남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도가 이루어져 좌담회 개최의 필요성이 없어졌기에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1940년과 1944년은 전쟁으로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았으며, 1948년에는 런던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지만, 전범국이라는 이유로 일본은 올림픽에 참가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결국 유독 1936년에만 좌담회를 거른 셈이 된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가는 과정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조선반도 출신의 선수 손기정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좌담회를 개최한다면 손기정만이 아니라 동메달을 딴 남승룡도 당연히 초청받아 마땅한 '올림픽의 영웅'이었다. 하지만 동아일보의 <일장기말소사건>으로 손기정은 일본 정부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어 어떤 행사에도 참가할 수 없는,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었다. 모든 환영행사도 취소될 정도로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손기정은 일본에 돌아왔으며, 고국에 돌아와서도 그 상황에는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문예춘추』에서 좌담회를 개최하려면 손기정이나 남승룡을 제외했어야만 했을 것이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런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문예춘추』는 좌담회 개최 자체를 포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장기말소사건> 이전까지는 일본인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손기정의 금메달 획득에 환호와 갈채를 보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금메달을 따서 일본이라는 국가의 위상을 높여준 손기정은 조선인이 아니라 곧 자랑스러운 자신들의 동포였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의 호외에 실린 사이조 야소의 시가 그런 일본인들의 의식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것이다. 「우리의 영웅! 탄환처럼 튀어나온 작은 사나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시로, 이 시의 어디에도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뛴 조선인 손기정의 입장을 염두에 둔 표현은 단 한 줄도 없다. "춤춰라! 일어나라! 노래하라! 일본인!/ 일본은 보여줬다/ 이 작은 사나이 손(손기정--인용자)을 통해/ 세계를 이끄는, 약진하는 일본의

www.kci.go.kr

늠름한 현재의 모습을"과 같이, 그저 일본의 승리에 도취해 일본의 국력을 세계에 보여줬다는 자긍심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을 따름이다.[21] 올림픽 관련 시나 산문에서 사이조는 나치즘이나 히틀러에 대한 찬양도 서슴지 않았다. 귀국 후 출연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올림픽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일은 "히틀러를 비롯해 나치스왕국의 건설에 참여해 활발히 활약하고 있는 정계의 인물들"[22]을 경기장에서 직접 볼 수 있었던 점이라고 말했을 정도다.[23] 히틀러의 인종차별정책을 문제 삼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올림픽 참가를 거부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사이조는 무지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관심한 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손기정이 어떤 각오로 뛰었으며, 어떤 심정으로 시상대에 올라갔는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사이조에게 없었으며, 물론 그의 시에도 반영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특파원으로서의 책무에 가장 충실했던 사이조에 비해서, 무샤노코지는 앞에서 거론한 바 있는 「올림픽 회상」이라는 글에서 처음으로 마라톤 우승에 관한 감상을 표명했다. 잠깐 인용하면, "이번 올림픽의 최고의 수훈자는 단연 손기정일 것이다. 손기정의 승리의 이면에는 뒤에서 도와준 사람의 꿈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나 손기정이 없었다면 일본은 최고가 될 수 없었던 것도 사실로, 이것은 손기정의 공로다. 한편 반도인(조선인을 의미--인용자)을 위해서도 기염을 토했으며, 그리고 일본의 명예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 점은 칭찬해도 좋으며, 또한 감사해도 좋을 것이다."[24]라고 하며, 손기정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정면에 내세우며 칭찬을 하고 있으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에 대한 배려를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조와는 차이를

21) 물론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당시 일본 사회 일각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가령 소설가 기타노 이치로(北野一郎)는 "사이조 씨는 베를린의 흥분으로 시인으로서의 영혼을 잃어 버린 걸까?"(「올림픽과 시인(オリンピックと詩人)」『일본시단<日本詩壇>』 1936년 10월호)라며 야유를 보낸 바 있다.

22) 「올림픽 선물(オリンピック土産)」 중에 나온 이야기로, 그 전문이 주 13)의 책에 실려 있다. p.188 참조.

23) 베를린올림픽으로부터 4년 후인 1940년에 사토 하루오도 손기정과 남승룡의 마라톤 경기와 관련해서 시를 지었으며, 그 내용은 사이조의 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토 하루오는 경기 장면을 직접 관람한 것이 아니라 1940년에 도쿄에서 상영된 베를린올림픽의 기록영화 <올림피아>를 보고 쓴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6절에서 다룰 예정이다.|

24) 주 16)의 책 p.54

www.kci.go.kr

보이고 있다.

한편 요코미쓰는 마라톤 우승과 관련해서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당시의 신문 기고문도 없으며『구주기행』에도 언급이 없다. 그 이유는 사이조의 라디오 대담 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이조에 의하면, 요코미쓰는 마라톤 경기를 끝까지 보지도 않고 도중에 돌아갔으며[25], 그러다 보니 결국 기사도 쓰지 않고 가장 먼저 귀국해 버렸다. 조기 귀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베를린에 있을 때도 요코미쓰는 셋 중에서 가장 태만한 리포터였다. 일단 기고문의 수가 가장 적다. 또한 그 내용도 특파원이라는 본분을 잊은 듯 전체적으로 가라앉은 톤에 냉철함과 비판력을 잃지 않고 있다. 가령 기대했던 일본 선수가 부진한 성적을 거두자, "민족의 육체의 한계"를 느낀다고 하며, "일본이 진 날은 나는 커다란 실험실에 있는 듯이, 이따금 망원경을 현미경처럼 손에 들고 사람들의 근육을 살펴보는 것을 재미로 삼는다."[26]는 식으로, 사이조와는 달리 결코 내셔널리즘에 함몰되지 않는 태도로 일관되어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글들을 보면 요코미쓰의 유럽행의 목적은 올림픽관전기보다는 유럽여행기나 소설의 집필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손기정의 우승과 관련하여 조선인의 입장을 고려한 양심적인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일본 국내에서 일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들 수 있다.

> 올림픽의 마라톤 경쟁에서 손군이 1등, 남군이 3등이었다. 둘 다 조선인이다. 이 조선인이 일본의 세계적 명예를 드높인 것이다. 조선인의 일본에서의 입장을 생각하고,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한없이 서글퍼지면서 분노조차 느낀다. 일본인은 세계의 우등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조선인에게 그 자리를 양보했다. 일본인은 좀 더 여러 가지 점에서 반성을 해야만 하지 않을까?

이것은 불교도로서 불교계의 혁신만이 아니라 일본사회의 개혁이나 반전평화를 위해 활동했던 세노오 기로(妹尾義郎)의 일기에 적힌 글이다.[27] 당시의 삼엄한 정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사적인 일기였기에 이 정도의 자유로운

25)「オリンピック土産」주 13)의 책 p.187 참조.
26)『도쿄니치니치신문』1936년 8월 5일 석간.
27) 주 6)의 책 p.238에서 재인용.

www.kci.go.kr

표현이 가능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조선의 소설가 심훈도 손기정의 우승 소식을 전하는 호외의 뒷면에 「오오, 조선의 남아여」라는 제목의 시를 남겼다. 핵심 부분만 인용해 보기로 하자. "'이겼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우리의 고막은/ 깊은 밤 승전의 방울 소리에 터질 듯 찢어질 듯./ 우울한 어둠 속에 짓눌렸던 고토(故土)의 하늘도/ 올림픽의 성화를 켜든 것처럼 화닥닥 밝으려 하는구나!" "전세계의 인류를 향해서 외치고 싶다!/ 인제도 인제도 너희들은, 우리를 약한 족속이라 부를 테냐??" 이 시를 사이조 야소의 「우리의 영웅! 탄환처럼 튀어나온 작은 사나이」와 비교해서 읽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이러한 예를 보면, 베를린 올림픽은 한일 양국에서 모두 스포츠 내셔널리즘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스포츠 행사였음을 알 수가 있다.

6. <올림피아>에 대한 문인들의 감상문

문화사적으로 볼 때, 베를린올림픽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 바로 <올림피아>라는 기록영화다. <올림피아>는 히틀러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아서 레니 리펜슈탈이 제작한 영화로, <민족의 제전>과 <미의 제전>의 2부작으로 되어 있다. 스포츠 장면을 촬영하는 새로운 기법의 도입 등으로 영화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작품이다 특히 손기정의 마라톤 경기 장면과 시상식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한국인에게도 자료로서 큰 가치가 있는 영화다. 하지만 1938년 4월 20일 히틀러의 생일에 맞춰 개봉을 했을 정도로 히틀러를 올림픽의 주인공으로 부각시키고 아리아 인종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나치즘을 선전하려는 목적의식이 뚜렷해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영화이기도 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상영을 거부하기도 했으나, 파시즘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1938년 베니스영화제에서는 최우수작품상인 무솔리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1940년 8월 29일에 개봉되어 일본이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던 베를린올림픽의 감격을 되새기고자 하는 관람객들이 장사진을 이뤘다고 한다.[28] 그런데 그 관람객 가운데에는 많은 문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어

www.kci.go.kr

영화 관람 후 다양한 형태의 감상문을 남겼다. 그러한 감상문 속에 글쓴이의 사상이 담겨 있으므로, 그 중 인상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대표적인 것으로 사토 하루오(佐藤春夫)의 시 영화 <민족의 제전>의 인상(映畵<民族の祭典>の印象)」(『日本映畵』1940. 7, キネマ旬報社)을 들 수가 있다. <올림피아>의 제1부 <민족의 제전>은 총 121분의 분량인데, 그 중 손기정과 남승룡의 마라톤 경기 모습과 시상식 장면에 10여분을 할애했다. 게다가 <민족의 제전>의 결말을 마라톤 결승 장면으로 장식할 정도로 두 선수의 모습이 일본의, 아니 세계의 그 어떤 선수보다도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인지 사토 하루오는 영화에서 마라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듯, 손기정과 남승룡을 찬미하는 내용의 시를 썼다. 지면 관계상 인용은 생략하고 요점만 말하면, 사토 하루오의 시 역시 앞서 살펴본 사이조의 시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두 사람이 조선인이면서 일본 대표로서 뛸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시인의 관심 밖인 것이다.

또한 소설가 야스오카 쇼타로(安岡章太郎)는 개막식 장면을 보며, "일본선수단이 볼품없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모두 열심히 가슴을 펴고 그 짧고 휜 다리를 움직이며 열심히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저절로 눈에서 눈물이 솟아나오며 뺨을 따라 떨어졌다."[29]고 회고하고 있다. 신체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성적을 거둔 일본 선수들에 대한 찬양으로 일관되어 있어, 야스오카의 글 역시 내셔널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밖에도 직접 스포츠를 하는 문학자로 유명하며, 1964년 도쿄올림픽 때 직접 경기장을 찾아다니며 많은 관전기를 남기기도 했던 미시마 유키오 역시 영화 <올림피아>에 대한 감상을 남겼다. "'민족'이라는 관념을 영화든 문학이든 그토록 강렬하게 표현한 것은 <민족의 제전> 이외에는 없다."고 하거나, "가슴에 단 일장기는 일본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할 정도로 감격적이었다. 히틀러가 열광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30]라고 하는 감상문에는 내셔

28)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40년은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었던 해다. 게다가 로스앤젤리스올림픽이나 베를린올림픽이 8월에 개최되었듯이, 올림픽 개최가 실현되었다면 도쿄에서도 8월에 개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올림픽 개최를 포기하면서 그 대신에 과거의 일본의 영광을 되새기자는 차원에서 <올림피아>를 개봉한 듯하다. 또한 1940년은 일본과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의 3국동맹이 조인된 해이기도 하다.

29) 安岡章太郎(1991)『僕の昭和史Ⅰ』講談社文庫 p.120

www.kci.go.kr

널리즘으로 무장된 미시마의 정치적 소신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런 가운데서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가 남긴 철학적이며 은유적인, 올림피아」라는 제목의 에세이는 매우 돋보인다. 그는 우선 어떤 질서와 목적하에 육체와 정신의 일치를 통해 탄생하는 선수들의 경기 장면, 그리고 그때의 선수들의 신체의 아름다움에 감탄한다. 그 선수들이 일본인이라서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아름답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이 등장한다. "밤하늘에는 뉴스를 알리는 전광판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지금 화면에서 게양된 국기 중 몇 개는 그 의미가 이미 변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듯했다. 군중은 육체를 상실한 사람의 영혼처럼 보였다."[31]라는 구절이다. 이 영화가 제작된 것은 1936년이며 일본에서 개봉된 것은 1940년이므로, 그 4년 사이에 식민지화로 인해 국기를 게양할 수 없게 된 나라도 있을 것이며, 동맹국에서 적국으로 변한 나라나 정치적 노선이 바뀐 나라도 있을 것이다. 고바야시는 그런 국제적인 정치상황의 변화를 담담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글에서 고바야시는 내셔널리즘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군국주의의 심화로 인해 1936년보다도 더욱 표현의 자유가 없어진 1940년의 상황에서는 민감한 정치적인 언급은 이런 식의 은유적이고 소극적인 표현에 의해서만 가능했을 것이다.

한편, 조선에서는 <민족의 제전>이 손기정의 우승 장면으로 인해 내셔널리즘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상영이 금지되었다. 그러다가 1946년 2월에야 비로소 개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32], 동시대에 한국의 문학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시에 일본에 체재하던 한국인이 영화를 보고 남긴 감상문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30) 三島由紀夫「オリムピア」『三島由紀夫全集』(2003) 26巻, 新潮社 p.78
31) 주 18)의 책 p.366
32) 1946년 2월 7일부터 대륙극장에서 상영되었다. http://cafe.naver.com/tgahn

www.kci.go.kr

7. 맺음말

베를린올림픽이 개최된 1936년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 26 사건>이 일어난 해이자 프로야구가 출범한 해이기도 하다. 즉 각종 정치적 탄압과 사상의 통제 속에서 대중들의 관심은 스포츠에 쏠려 있었던 해인 것이다. 그리고 그 관심의 중심에 베를린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이벤트가 있었다. 이처럼 대중들의 관심을 스포츠로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문학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었다.

물론 문학자들 가운데는 소설가 나가이 가후(永井荷風)와 같이 그런 스포츠 열기에 냉담한 사람도 있었다. 일본 전국이 한창 베를린올림픽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던 1936년 8월 5일에, "온종일 라디오 소리가 시끄러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33]고 썼던 그의 일기에서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 대한 불만을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다. 이처럼 1936년 당시에 올림픽 중계방송을 시끄럽다고 느낀 나가이 가후와 같은 소설가가 있었는가 하면, 올림픽 현장에서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시를 써서 일본으로 보낸 사이조 야소와 같은 시인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베를린올림픽 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군국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사이조 야소는 물론이고 기타하라 하쿠슈, 심지어는 요코미쓰 리이치마저도 내셔널리즘에 호소하며 전쟁을 부추기는 정치적 선동에 앞장서게 된다.

<參考文獻>

김옥희(2012) 일본 근대문학과 스포츠, 소명출판 pp.76-77, 124-139
上村直己(2012) 西條八十の見たベルリン五輪、熊本出版文化会館 p.14, 188
北野一郎(1936) オリンピックと詩人『日本詩壇』1936. 10
坂上康博(1998) 權力裝置としてのスポーツ, 講談社 pp.181-182. 238
関無門(1936) 壮絶な空輸リレー,『文芸春秋』1936. 9, p.175
西川貴子(2009) 「わたし」と わたしたち」の狭間- 走ることを語ること」の意味 <疋田雅昭編著 スポーツする文学 1920−30年代の文化詩学、青弓社> pp.272-273
疋田雅昭(2002) 写真との邂逅、写真の不在、そして避けられる物語ーー村野四郎『体操詩集』をめぐって、日本文学 2002.11. pp.44-45

33) 永井荷風『斷腸亭日乘』,『荷風全集』(1963) 第12卷 岩波書店 p.80

www.kci.go.kr

疋田雅昭(2004) スポーツ、政治、そして詩人たち――村野四郎の「近代修身」を視座に、昭和文学研究 2004.3. p.21
福田清人(1967) 横光利一, 清水書院 p.75
文芸春秋 編(1988) 文芸春秋にみるスポーツ昭和史 第1巻、文芸春秋社 p.276, 278-284
三島由紀夫(2003)『三島由紀夫全集』26巻, 新潮社 p.78
武者小路實篤(1989)『武者小路實篤全集』12巻 小学館, p.46, 54, 55
安岡章太郎(1991)『僕の昭和史Ⅰ』講談社文庫 p.120

· 인터넷 자료
日本軍歌保管庫 http://gunka.sakura.ne.jp/uta/ageyohinomaru.htm
『ウィキペディア』<ベルリンオリンピック>
http://cafe.naver.com/tgahn 2243/4216

접 수 일: 0월 00일
심사완료: 0월 00일
게재결정: 0월 00일

www.kci.go.kr

<Abstract>

Japanese Modern Literature and Sports Nationalism

It was 1930s that Japanese Government made a frantic attempt to empower ideology of emperor system and spread militarism. At the same time, it was the time of popularization of sports as it received great deals of enthusiasm by public crowd. However, the two phenomena, the dissemination of militarism and the popularization of sports were not coincidence. This is because the popularization of sports secretly contained the purpose of Japanese Government, which was to actively appropriate sports to empower militarism and nationalism. Since the Roman Empire, sports have kept close relationship with politics as it was used as a means of control of mass. In Japan, this aspect was conspicuous particularly in 1936, the year of the Berlin Olympics.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ate how the Government utilized literature and what roles writers played in Berlin Olympics in order to increase the attention of nation's interest on Olympics and enhance nationalism.

Mass media actively cooperated Japanese Government's political use of sports. Especially, since newspapers were having keen competition to collect readers, they needed to increase the excitement about Olympics by with mass-friendly methods. Asahi Shimbun's open competition of Olympics songs for cheer was one of the them. Since it is inevitable for fight songs to involve nationalism, this paper finds the link between literature and sports nationalism by investigating Olympic fight songs.

Following the open contest of fight songs, each newspaper made great deals of efforts to effectively deliver the excitement of Berlin Olympics to Japanese people, such as hiring novelists and poets as reporters. That was the first time literary writers participate the report of sports. Novelists such as Yokomitsu Riichi, Mushanokoji Saneatsu and poets including Saijo Yaso are the examples. They increased the attention to the Olympics and enhanced nationalism by visiting the sites and reporting the opening ceremony, games and medal winners by prose or verse with literary rhetorics.

Why would the three were selected as special correspondents among numerous writers? The paper primarily examines the causes and the background. Then it compares the attributes of prose and verse written by the three writers focusing on Olympic Ceremony and Sohn

www.kci.go.kr

Ki Jung's winning gold medal. This reveals Saijo Yaso was the most loyal correspondent and his poems are the most applicable example of utilizing literature for instigating sports nationalism.

Lastly, the paper analyzes the critiques on *Olympia* by Japanese literary scholars. It investigates Sato Haruo's poems, works of Yasuoka Shotaro and Mishima Yukio featuring nationalism like Saijo Yaso's pieces, followed by analysis of Kobayashi Hideo's essay which shows opposite direction.

1936, the year of Berlin Olympics, is the year that 2/26 Incident occurred and professional baseball started to run. It means the popular interest was on sports living in the condition of political suppression and ideological control. Hence, this paper is an attempt to reveal the contribution of literary writers to the Berlin Olympics, the central issue of the public interest.

www.kci.go.kr